



특집 ③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서비스

창원 상남도서관

최진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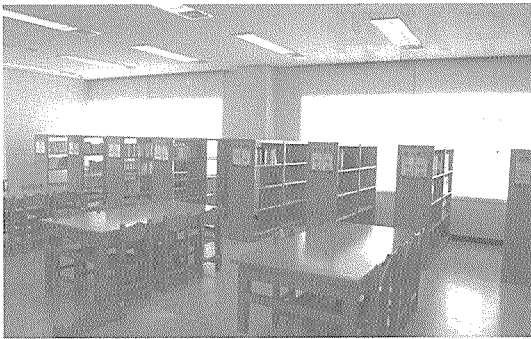
창원시는 창원시립도서관과 창원시립상남도서관과 고향의 봄 도서관, 그리고 경남도립 창원도서관, 마을도서관 등 27개의 도서관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다. 시민들은 어느 곳에서나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도서관이 있어 도서관 이용이 몸에 베어 있는 곳이다. 이들 도서관은 조금씩 달라서 주민들은 필요에 따라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창원시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모여사는 곳인 가음정동에 창원시립도서관의 분관격이면서 어린이도서관으로 특화한 상남도서관이 개관하여 이용자, 사서,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창원시는 도서관을 새로 개관하면서 각각의 도서관들을 특화도서관으로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시립도서관은 환경자료 특화도서관으로, 고향의 봄 도서관은 이원수 관련 특화도서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린

이도서관을 표방하고 나선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도서관문화>가 어린이도서관을 특집으로 다룬다고 하여 상남도서관을 직접 방문해 보았다.

상남도서관은 큰 도로를 앞에 두고 건너편에 많은 아파트, 옆으로 조그만 소방도로를 사이에 두고 큰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우리나라 어느 도서관보다 좋은 곳에 들어섰다. 상남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공공도서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어린이도서관이라기보다는 공공도서관으로서 어린이 서비스에 강조점을 두는 형태라고 하는 것이 더 올바른 이해라는 생각이 든다. 1층에 위치한 어린이자료실에는 6,000여권의 장서가 소장되어 있다. 처음 개관당시에는 4,000여권이었던 것이 꾸준히 늘어났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이용이 많은 탓에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

* 사서, 마산 어린이 서점 골령쇠 대표

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너무 많이 대출을 해 간 탓에 서가에 빈 곳이 많이 보였다. 그 만큼 도서관에서의 어린이 서비스에 대해 많은 어린이들이 목말라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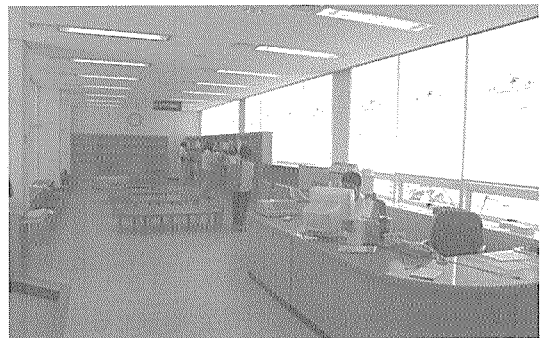


〈자료실 내부〉

다. 어린이들에게 좋은 도서관 환경을 마련해 주는 일은 그래서 더욱 더 중요한 일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 사회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린이자료실은 밝고 아담한 분위기로 만들어져 있다. 그림책은 바닥에 앉아서도 볼 수 있도록 해서 어머니들이 아이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어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처음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도서관을 찾고 있어 시에서도 상남도서관의 어린이 자료 확충에 더욱 큰 비중을 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 도서관에는 3명의 사서와 30명의 도서관 자원봉사자가 일하고 있다. 다른 도서관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전담인력은 크게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어린이자료실 이외에도 장애인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참고열람실, 연속간행물실, 종합자료실에 자유열람실과 다목적홀까지 있는 도서관을 활기차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 부분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일이기에 안타까움을 더

한다. 그런 점에서 자원봉사자는 도서관 운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규직원이 해야 할 일이 있는 만큼 적절한 수의 직원을 확보하는 일은 좋은 도서관을 위한 첫 번째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역주민들의 지지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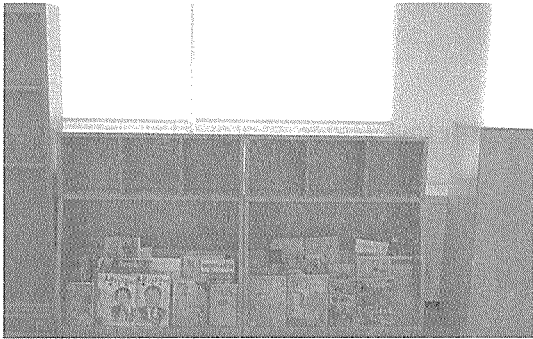


〈자료실 이용자와 사서의 모습〉

대부분의 공공도서관들도 상남도서관과 같이 어린이실을 두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상남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으로 특화해 나가겠다고 한 것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어린이 서비스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건물의 형태나 전문사서의 부족, 장서확충이나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아직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상남도서관이 어린이 특화도서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우선은 어린이 특화 도서관으로 제자리 잡기 위해서는 도서관 직원들이 어린이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었으면 한다. 어린이 서비스는 담당사서가 얼마나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가에 따라 봉사 수준과 결과가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상남도서관 직원들은 앞으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들의 어린이 서비스 전문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다음으로는 역시 시설 면에서 유아열람실과 어린이 열람실 공간분리 등 몇 가지 점은 지속적인 고민을 통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유아와 초등학생들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두 영역은 함께 존재하면서도 적절한 구분은 필요하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공간도 확보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은 서비스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잡지 서가 모습〉

끝으로 다목적 홀 활용에 있어서도 어린이도서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부모교육강좌, 독서지도 강좌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면 어린이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하게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도서관 자원봉사활동도 지역의 '동화 읽는 어른모임' 과 같은 전문적인 시민활동과 함께 한다든가 독서 전문가나 아동전문가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하여 정기적인 독서상담, 심리상담을 하는 등 보다 전문적인 인적자원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도서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조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상남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을 표방한 것은 나름대로 기존의 공공도서관과는 다른 차원의 어린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은 시작단계이기에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겠지만 이제 시와 도서관 직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장 좋은 도서관 환경을 마련해 주려는 노력을 함께 해 간다면 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한 실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기대란 남에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렇게 해 가려는 의지이자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좋은 도서관은 시민들의 권리이자 또한 시민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상남도서관이 진정한 어린이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겠지만 창원시와 시민들의 도서관 사랑의 열기를 보아서 분명하게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도서관을 찾는 발길과 이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운영에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도서관을 뒤로 했다. 분주히 도서관을 드나드는 어린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다.